



## 감사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분석부 홍성권

수돗물이 쏟아진다. 이 정도의 소음이면 지금 내 눈이나 가슴에 동요로 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정도는 숨겨줄 수 있을 터이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마음의 동요는 내 나이의 체면이나 이성과는 상관없이 좁처럼 가라앉지를 않는다. 이리다 아내나 아이들에게 어찌면 불안함을 전염시킬 수 있겠다는 걱정으로 스스로를 타이르며 세면장 문을 나서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다시 무너진다. 벌써 10분째 난 세수를 하고 있다. 집사람은 아직 까진 모르는 것 같다.

아내가 매달 손님 오는 때마다 남들보다 유달리 아파하는 게 걱정되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된 일이었다. 2달 전 다녀온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나 자신의 무지와 무신경을 깨닫게 됐고 힘든 1달여간 동안의 검사과정 내내 자궁내 '종양'이라는 예상치 못한 의사의 말을 듣고 자책과 불안함 때문에 수시로 무너지는 이성과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면장이나 비상구를 수시로 들락거려야 했다. 한없이 나약한

내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진 않았다. 결국 힘든 검사를 거쳤음에도 병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이 2시간 반의 수술을 받고 나서야 '자궁내막증 4기(양성종양)'이라는 병명과 함께 자궁적출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고, 난 200년 같은 2달간의 불안과 고통을 다소 덜 수 있었고 하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비록 가능성이었지만 이번 일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자각은 내가 그 동안 누려왔던 일상생활의 작은 행복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어릴 때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위대한 과학자, 변호사, 의사, 예술가를 꿈꾸는 막연하고 세속적인 희망에 길들여져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한다고 생각했고, 커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쯤 파도에 떠밀리듯 남들처럼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습관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바램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조금해지고, 욕심내고 집착해온 날들이 많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내가 내 바램보다 소유 못한 것이 많다는 사실은 변함 없겠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고마움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 아니었나 싶다.

매일 아내와 아이들의 배움을 받으며 현관을 나서는 나, 늦도록 놀다 집 초인종을 누르면 내심 숨기지만 내 걱정을 하느라 잠을 못 이루다 결국 화풍이를 해대는 아내, 아빠를 늘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는 딸들, 아이들이 어버이날 색종이 카네이션을 접어 처음으로 내게 준 날, 처음 학부형이 된 날, 등등... 이런 일들이 내겐 당연히 주어진 일상들이라고 생각했고 그저 생활의 일부일 뿐이라고 무심히 넘겨왔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고 축복이며 감사해야할 일들인지 . . .

요즘 신문들 보면 생활고를 비판해서 자살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실 어떤 것이든 상실한다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런 종류의 경험이지만 비판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무언가를 상실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것들의 고마움과 또 다른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지각을 주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누구나 스스로의 삶과 생활에 대해 평소부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자주 가진다면 신문에 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반문해 본다. 인생이 단순히 부유한 삶이나 높은 지위만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난해도 남을 위해 베풀며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항상 채

워지지 않는 소유욕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다. 결국 현실적인 부유함보다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진 사람이 진정 부자가 아닐까?

마음의 부유함은 고루하고 진부한 것일 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부단히 자기 성찰과 반성하는 진실 된 자세로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일 것이다.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 난 주변에 가득한 감사해야 할 일들을 잊고 지냈고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할 것 같다. 스스로에 대한 뉘우침이나 성당에서 하는 기도시간의 자기성찰도 다분히 형식적이고 진실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도 부족했던 것이리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사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들이 가장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껴오던 터에 내일부터라도 고마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숙제도 봐줘야겠다. 참, 내일 집에 일찍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던데... 사람은 망각에 동물이라던가? 이것도 어찌 보면 감사해야할 일인 것 같다.

어쨌든 잊기 전 까진 열심히 반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하자.

